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9일
(월요일)

복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민원특위, 설 앞두고 통합관제센터 안전점검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 확인



▲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통합관제센터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는 설을 앞둔 지난 16일 오후 7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로부터 구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547대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를 방문했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모니터링 방법을 지켜봤다.

위원들은 현재 동별로 묶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화면이 희뿌옇게 보일 때 처리방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을 물어보며, 예산부족에 대해 타구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 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구민안전의 중요성과 근무요원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방문활동을 계기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한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